

# 우락으로 사랑 많다

▶ 영산강유역 탐사 및 사진촬영대회 (2018. 11. 17.)



삶과 문화로 꽃피는 영산강 삼백오십리 앵글속 강 이야기

‘내 폰속에 담는 영산강’ 답사와 사진촬영대회

일시 2018년 11월 17일(토) 장소 영산강 일대 주관 목포화석운동연합 주최 전라남도



목포여자고등학교 김 지 연

목포 청소년 환경 서포터즈에서 실시하는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였다. 목포역에서 버스를 탄 후 첫 번째 코스인 주룡나루로 향했다. 주룡나루는 무안군에서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나루터이다. 다음 코스인 식영정과 느리지를 다녀오고 제일 기대하였던 영산포 역사 갤러리를 들렀다. 아슬아슬한 역사 갤러리의 간판과 낡은 집과 좁은 골목들을 걷다보니 영화 촬영을 마친 세트장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 곳에서는 일제 강점기 나주평야의 곡물을 수탈해갔던 곳으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문서와 조선식산은행, 일본인 지주가옥 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일본에서 직접 목재와 기술자를 데려와 조선에 건축하였다는 말을 듣고 당시 그들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산강을 보면서 영산강의 유구한 역사와 착취당한 조선민족을 떠올렸고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배고픔과 치욕이 가슴 깊이 느껴지는 날이라서 마음이 아팠던 날이었다.

목포제일여자고등학교 김 도 예

처음에 영산강에 간다고 해서 가서 단순히 정화활동만 하는 봉사인 줄 알았다.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해설가 선생님 한 분이 영산강에 대한 것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씩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포의 이름이 원래 목포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 평생 목포에만 살면서 이런 사소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자신이 조금 창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설명을 들으며 가니 영산강에 금방 도착했다. 영산강에 도착하고 보니 진짜 너무너무 예뻐다. 지금까지 살면서 강은 많이 봤지만 지금껏 봤던 강들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 그날따라 날씨도 맑아서 정말 한편의 그림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강 주변을 걷다 보니 쓰레기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제일 크지만 걷다보니 쓰레기통이 몇 개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통이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해서인가...요새 우리나라는 점점 쓰레기 국가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이것밖에 안되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진다. 하지만 또 그럴때마다 내가 바뀌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

영산강을 가며 골목을 걸었는데 정말 시골 그 자체였다. 시골을 많이 가보지 않은 내게 주말에 갔던 곳은 정말 신기한 장소였다. 정말 과장하지 않고, 공기가 좋았다. 하늘도 맑았다. 이런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봉사는 정화활동을 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 봉사를 간 듯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그 전에 갔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텐데, 환경서포터즈 활동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몇 번이고 더 가보고 싶다



#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을 읽고

글 / 강덕수 (회원)



이 책은 빠른 속도로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보다 더욱 더 빠른 속도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빈부의 극심한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붕괴 현상 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금폭탄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등의 부정적인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불평등한 부의 수준에 따라 기회의 균등이 저해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모두에게 쿠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는 마크 저커버그의 말처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를 비롯한 NGO들의 노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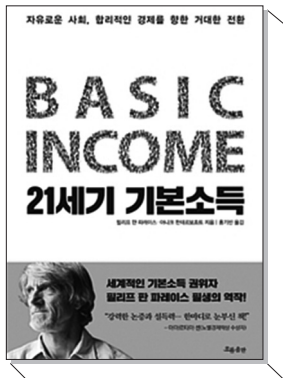
비록 스위스 국민투표에서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등 유럽 각국에서의 시범 실시를 통한 그 실현 가능성이 기대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은 무임승차를 용인하거나 불로소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계를 보호함으로써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나쁜 일자리를 도태시켜서 자아실현이라는 긍정적 노동 요인을 강화한다.

송파 3모녀 사건에서 목도하였듯이 국가나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현실과 아동수당 지급에서 보았듯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편익을 웃도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에 잡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호모사피엔스의 자존감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개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 제도가 19세기 말 독일의 강력한 우파 정부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최초로 실시되고 1980년대 미국의 공화당 출신 알래스카 주지사에 의해서 석유 판매 수익에 따른 석유기본소득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민심이 형성되는 곳에서 부터 그 가능성은 양태되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일독이 지구인 모두의 양극화 해소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지은이), 홍기빈 (옮긴이) | 흐름출판  
2018-06-18 | 원제 Basic Income (2017년)

# 통일을 위한 발걸음

글 / 유주훈 서울남부초등 6학년 (김진형 회원 아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점들이 있다면 첫째, 경제적인 면입니다. 남과 북 사이에 들어가는 분단비용은 매년 거의 1조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있는데, 이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이 문화,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물론 통일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떡할 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일시적인 것이고, 분단 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독일이 동독과 서독을 통일 해서 큰 경제적 발전을 이룬 것처럼,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 되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도주의적인 부분입니다. 남과 북은 70년이 넘게 분단되었고,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 분들이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거나, 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70년 동안이나 떨어진, 소중한 가족들을 한결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플까요?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해결해 주고 평화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퍼즐, 단지 미완성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을 통해 퍼즐을 완성해서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 한 사람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십시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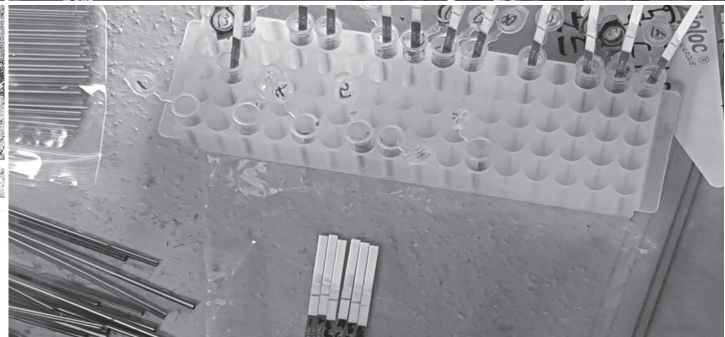
# 10월

- 01일(월) MBC 뉴스인터뷰 녹화(흑산공항 문제)
- 02일(화) 제4회 환경실천수기공모전 현수막 게시(10개)
- 10일(수) 해양쓰레기모니터링(진도군 하조도, 해남군 목동리)
- 13일(토) 청소년환경서포터즈 교육 -현명한 글쓰기 Tip
- 15일(월) 함께사는길, 제114호 소식지 우편발송 / LMO조사(영암, 함평)  
전남교육참여위원회 조례(안) 토론회(도교육청)
- 17일(수) 국립공원 협치위원회(우이도)
- 19일(금)~20일(토) 전남 · 광주 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여수)
- 21일(일) 강하천살리기 지원사업 1차 조사
- 22일(월) LMO조사(영암군)
- 24일(수) 영산강 하구 수질개선을 위한 포럼 (광주)
- 26일(금) LMO조사(신안군 압해도)
- 29일(월)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 & 토론회  
목포촛불2주기 행사위원회 회의

· 제5차 해안쓰레기모니터링



· 영산강 하구 수질개선을 위한 포럼 (광주)



· 전남 · 광주 환경운동연합 임원활동가 수련회 (여수)

· LMO조사 (신안군 압해도)



# 11월

- 01일(목)-02일(금) 자원순환 빈용기 실태조사
- 03일(토) 청소년서포터즈 6차 교육(안전교육)
- 05일(월) 환경실천수기공모 종료 보고
- 06일(화) 목포촛불2주기 행사위원회 회의
- 08일(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대전)
- 06일(화) 목포촛불2주기 행사위원회 회의 / 1차 총회준비위원회
- 09일(금) 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정산서 제출
- 13일(화) 1층 세미나실 공사 준비
- 17일(토) 영산강답사와 사진 촬영대회
- 21일(수) 풀뿌리 공익활동지원 사업 계약체결 (광주)
- 22일(목) 제210차 집행위원회  
전남도의회 보건환경부위원장 면담(친환경운동장 조례제정 관련)
- 23일(금) 석면모니터링 교육
- 26일(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진도군 하조도, 해남군 목동리)
- 29일(금) 영산강하구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청소년서포터즈 6차 교육 (안전교육)



· 영산강답사와 사진 촬영대회 1



· 영산강답사와 사진 촬영대회 2

· 제6차 해안쓰레기모니터링

10월

(주)세일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유)서남환경/(유)일우산업/우진건설/목포대성신탁/장동춘(박민아)/감익갑(장미선)/강구일/강덕수/강대화/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영규/강재석/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희/곽신영/곽재구/국순천/김기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하/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성룡/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승현/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욱/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윤임/김은미/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연/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탁/김태근/김태웅/김행연/김현근/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영숙/노애란/류미현/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휘/박수현/박순미/박영운/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중섭/박종익/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최근/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희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백동진/백수정/백재봉/봉형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손철주/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우/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성/오미선/오미선/오숙향/오영출/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업/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태/이내훈/이동훈/이명희/이복섭/이상엽/이상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환/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식/이준호/이지우/이지현/이창원/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이형만/이화태/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욱/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보윤/장영미/장기주/장기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울/정귀정/정기심/정동욱/정수민/정수정/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우/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빈/진선우/차용만/채희중/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선/최승춘/최승희/최영성/최영운/최예화/최완수/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녕/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철준/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해미/

목포환경운동연합 10월 결산보고 (10월 1일 ~ 31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417,000	사 업 비	교육사업	70,620
	단체회비	515,000		조사연구	0
소 계	5,932,000	홍 보 비		0	
후 원 금	400,000	행 사 비		0	
사업수익	300,000	연대사업		624,080	
기타수익	132,700	소 계	694,700		
이자수익	0	회 의 비	총 회 비	0	
중앙지원금	0		위원회비	188,000	
사업준비금	0	소 계	소 계	188,000	
■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 - 디자인그리다 250,000 ■ 사업수익 - 광고비 300,000 (이해송, 최은기, 김영호, 조영인)			인 건 비	금 여	3,300,000
				복지후생비	525,10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4,100,10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65,500
				활 동 비	200,000
			소 계	소 계	365,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319,260
				소모품비	42,400
			소 계	소 계	879,660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20,070	
			지급 수수료	139,600	
당월수입금	6,764,700		당월지출금	6,487,630	
전월이월금	14,808		통장 잔액	291,878	
합 계	6,779,508		합 계	6,779,508	



# 11월

(유)사람과사람/(유)서남환경/(유)일우산업/(주)세일산업/(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장동춘(박민아)/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영규/강제석/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성철/고윤혁/곽기태/곽기태/곽신우/곽재구/국순천/권수한/김기영/김경미/김경완/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김병주/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승현/김시연/김심옥/김애자/김연호/김원호/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완석/김웅구/김용임/김용익/김용진/김용기/김윤임/김은미/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숙/김지연/김진영/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택/김태근/김태웅/김해성/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숙/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래/김화영/김희주/나광봉/나영명/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류미현/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박갑수/박경양/박기남/박기성/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정/박병구/박서근/박성원/박성현/박성희/박수현/박순미/박영윤/박용일/박용호/박유정/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재홍/박종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최곤/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배영식/백동진/백수정/백재봉/봉형구/서병권/서석철/서연순/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상훈/손철주/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동영/신현령/신현인/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성/오숙향/오영출/오왕근/오하늘/오현주/옥선필/위준철/유대홍/유영욱/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내홍/이동훈/이명희/이봉섭/이상엽/이성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한/이승환/이용철/이우주/이월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종훈/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태환/이현승/이현정/이현주/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진옥/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천/장보윤/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정거배/정고운/정권용/정귀정/정기심/정동욱/정수민/정수정/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중삼/정지법/정창권/정현찬/제갈경희/조경민/조동기/조미정/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성은/조애린/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우/조원기/조은일/조혜남/조호빈/진선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신/최송준/최승희/최영섭/최영운/최예화/최원수/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녕/최환석/최휘철/하명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혜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11월 결산보고 (11월 1일 ~ 31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042,000	사 업 비	교육사업	416,020
	단체회비	515,000		조사연구	0
소 계	5,557,000	홍 보 비		0	
후 원 금	1,150,000	행 사 비		0	
사업수익	100,000	연대사업		240,290	
기타수익	130,000	소 계	656,310		
이자수익	0	회 의 비	총 회 비	0	
중앙지원금	0		위원회비	60,000	
사업준비금	0	소 계	소 계	60,000	
■ 후원금 - 후원회원 150,000 - 전남개발공사 1,000,000 ■ 사업수익 - 광고비 100,000 (조원기)			인 건 비	금 여	3,300,000
				복지후생비	529,920
				퇴직적립금	275,000
			소 계	소 계	4,104,920
			업무추진비	출 장 비	205,700
	활 동 비	80,000			
	소 계	285,7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20,00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15,130
				소모품비	25,000
	소 계	278,13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6,470			
	지급 수수료	132,980			
당월수입금	6,937,000	당월지출금	5,624,510		
전월이월금	291,878	통장 잔액	1,604,368		
합 계	7,228,878	합 계	7,228,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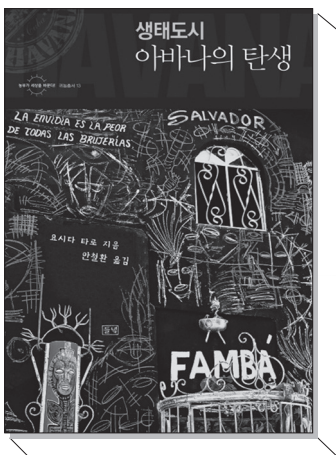


## 조선의 생태환경사

김동진 (지은이) | 푸른역사 | 2017-02-11

옛 전통마을은 산을 뒤로하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가파르지 않은 남향 산기슭에 발달했다. 마을 앞의 논은 오랜 세월 산에서 흘러내린 유기질 토양이 쌓인 문전옥답(門前沃沓)이었다. 마을 뒤 경사면은 연결되었다.

역사학자인 저자가 펴낸 《조선의 생태환경사》는 우리 선조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생태학적 관점을 찾아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다. 생태주의 시각으로 보면, 15세기 조선 건국 초기에 이미 생태주의에 반하는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요시다 타로 (지은이), 안철환 (옮긴이) | 들녘 | 2004-02-09

1990년대에 쿠바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붕괴에 직면했다. 소련 붕괴와 1959년 혁명 이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석유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던 것. 그러나 농업국인 쿠바는 국제분업 체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국내 식량 자급률이 40%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아바나 시민은 도시를 '경작'하기 시작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조차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도시농업은 22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채소를 완전히 자급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쿠바의 변화는 에너지, 교통, 의료, 교육, 토지, 녹화, NPO 등의 분야로 뻗어나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유턴했다. 이제 쿠바는 탈(脫)석유문명을 꿈꾸는 생태주의자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되었다.

## 멸종위기에 빠진 오랑우탄



긴팔을 휘저으며 ‘우끼끼 우끼끼’ 소리 내는 오랑우탄의 모습, 한 번쯤 따라 해 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랑우탄은 사람과 비슷하기도 하고 책이나 미디어 등에서 자주 접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 친근하고 인기가 많은 동물인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오랑우탄이 사실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멸종 위기에 처한 오랑우탄! 과연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물의 멸종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도 오랑우탄은 ‘심각한 멸종 위기 종’의 생물이예요. 멸종 위기 종은 개체 수가 적어 멸종할 위험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사냥과 야생 서식지의 개발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률로 보호받는 종은 절멸로 위협받는 생물 전체 가운데 얼마 되지 않고, 사실 대부분이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멸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숲의 사람’이라는 뜻의 오랑우탄은 100년 전만 해도 23만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세기 만에 ‘심각한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되었어요. 오랑우탄은 한때 동남아시아 대륙 넓은 지역에 분포했으나 현재는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에만 서식한다고 해요. 보르네오 오랑우탄의 경우 5만 5,000마리,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7,500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오랑우탄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주요 원인으로 바로 ‘팜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빵, 라면, 과자, 마가린 등의 식품을 비롯해 비누, 세제 등 생활용품 등에 사용된답니다. 또한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고온에서 녹지 않고 붉은색을 띠어 립스틱에 들어가기도 해요.

팜유를 얻기 위해서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우림을 태워 기름야자 농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전 세계 팜유 소비량은 1년에 50억 톤인데 이중 85%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팜유를 얻기 위해 지난 20년간 수 천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됐다고 해요. 이때 농장을 짓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랑우탄은 주로 사살됐어요. 미처 피하지 못해 불타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 또 숲이 사라져 먹이를 구하지 못한 오랑우탄은 농가 근처를 맴돌다가 몽둥이로 맞아 죽기도 했어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생활용품들 때문에 오랑우탄들이 멸종 위기를 맞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오랑우탄들을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랑우탄을 돕기 위해서는 우선 팜유 함유 제품 사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우리 일상 속 대부분의 제품들에 팜유 성분이 들어있어 이 실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품 성분에 팜유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팜유 제품 사용을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랑우탄을 멸종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종이를 아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실천들을 통해서 환경과 오랑우탄을 보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와 같은 일상 속 실천들을 통해 열대 우림 지역의 나무들을 지킬 수 있고 위기에 빠진 오랑우탄들도 도울 수 있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서식지를 잃은 오랑우탄 보호단체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들은 현지에서 오랑우탄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야생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재할을 도와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도 오랑우탄을 돕는 방법입니다. 일시적 혹은 정기적으로 후원을 통해 특정한 오랑우탄의 ‘대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 10~11월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최송준 추천 : 이정남, 김성길, 권수한, 오왕근, 이광봉, 박미옥, 최대순, 황민수
- 조상현 추천 : 박미정, 김일용
- 고윤혁 추천 : 최송주, 남주연
- 정병달 추천 : 김현숙, 최성국
- 양승희 추천 : 강경숙, 변재영
- 강덕수 추천 : 김태근, 김승현
- 양진국 추천 : 박희성, 김해성
- 고광업 추천 : 김행연
- 이현승 추천 : 차용훈



##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 해 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 2019년 정기총회 안내

2019. 1.17.(목) 오후 6시30분  
오거리문화센터

## 세무사 하영성 세무회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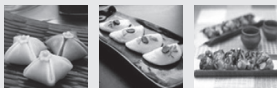
세무사 하 영 성  
목포시 백년대로 183  
전화 : 061-284-3335, 3314  
팩스 : 061-284-3372  
모바일 : 010-8143-5880

## 예다손떡

대표 : 조원기

061-287-2228

옥암동 1153-7



40여가지의 음료와 100여가지의 다양한 떡  
국내산 최상급쌀 100% 천연재료 사용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플라스틱 빨대 NO!!



손 현 회원



## 포 마 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 은 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